

<2020년 4월 22일 수요일예배>

주제 :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본문 : 창세기 3장 1-7절, 창세기 3장 22-24절

<R>

귀하게 쓰는 것도 쓰는 것이지만 관리하자. 더 귀하게 여기게 귀한 것을 줬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써먹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야겠다하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귀한 자는 귀한 옷도 입혀줍니다. 옷이 날개니까. 그런 식으로 귀한 것들을 더 귀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 하고 만들었어요. 소나무 같으면 심어 놓고 놔두지 말고 연출을 더 해야겠다. 수석도 연출입니다.

귀하게 쓰면 그로 인해서 연결 되어서 다른 귀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만물들을 귀하게 쓰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는 심판을 깨달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지어다. 여기서 교회는 성령과 연결된 자들, 통하는 자들을 말한다.

지혜 중에 하는 게 듣는 거보다 기록. 그리고 깨달을 때 바로 행하기. 자기 귀한 것을 깨닫고 자기 몸과 자기 만물 귀한 것을 깨달아라.

시대가 바뀌어서 보물이 되는 것이 있어요. 월명동 돌들이에요. 돌, 나무, 깨끗한 물이 보물. 그리고 최고 보물이 사람들. 그걸 알았기 때문에 40년 전부터 관리했죠.

귀한 것은 남이 모르니 자기가 알고 자기가 관리하고 잘 써야 해요. 잘 쓰면 영원히 보물 덩어리가 됩니다. 개발할수록 영이 개발된다. 무엇을 위해 할수록 상대성으로 된다. 욕심이 할수록 영이 됩니다. 극적으로 귀한 것을 깨닫고 연구하고 알아야 됩니다.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써라. 인생 쓰지 않으면 자꾸 늙어간다. 많이 쓰는 자만 많이 얻는다. 귀히 쓰는 자가 뺏기지 않고 귀히 쓰는 것이다. 부지런히 쓰고 찾아라.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런 시대가 다시 왔어요. 시계도 한 바퀴 돌면 다시 돌아옵니다. 창세기 시작이 6천 년 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그 때가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반드시 그때가 되면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바퀴 돌아서 역사 시작합니다. 똑같은 아담, 하와와 같은 입장이예요. 하나님이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아담이 한 일은 타락한 거 밖에 없어요. 그거 풀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은 타락한 일 밖에 없거든. 타락하고 어떻게 하나님 같이 되었지? 이것 풀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진짜 뱀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예요. 사탄이 아주 간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막고 그 근본자 타락하기 전 근본자 천사장 루시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막았어요. 하나님이 왜 창조했는가 하니 영계에 존재하는 자들은 같은 종으로 존재하는 자들이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다른 세계를 만들어서 사랑을 실컷 하려고 했어요. 다른 세계를 창조하려고 지구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다른 세계를 창조하면 자기가 사랑을 더 못 받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했지. 천사들이 그래서 하나님보다 생각이 낮아.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고 했죠. 마귀,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 줄 압니까? 진짜 간교해요. 아담과 하와가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타락하

로 비원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렸어요. 부모 같은 입장을 알아버렸어요. 우리는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 같이 되어 버렸다 함은 우리 같이 사랑을 알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죄 지은 것은 용서하면 되는데 용서하면 같이 살아야 되니까 용서 안 하고 내쫓은 거예요.

선악을 알았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줄게요. 이 말씀은 사명자 아니면 못 풀어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선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악이에요. 정상적으로 커서 알았으면 괜찮은데 비정상적으로, 비원리로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라버렸어요. 선악을 알면 천국을 가는 방법과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을 알지. 하나님 원하는 것이 뜻이고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 얼마나 많죠? 행하는 대로니라. 깨닫게 할 때까지 괴롭게 하리라.

이들은 타락함으로 알았고 우리는 배움으로 알았죠. 선의 결론은 구원과 휴거예요. 그리고 황금천국이고. 악은 뭘니까? 심판이요, 악의 세계로 가는 길이요.